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발생한 자발성 복강내 출혈 1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김정은 · 황은아 · 장미현 · 박우영 · 윤정수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 김형태 · 박우현

A Case of Spontaneous Intraabdominal Bleeding in Peritoneal Dialysis Patient with Amyloidosis

Jungeun Kim, Eunah Hwang, Mihyun Jang, Wooyoung Park, Jeongsoo Yoon, Seungyeup Han,
Sungbae Park, Hyunchul Kim, Hyungtae Kim and Woohyun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Kidney Institute

배 경 : 복막 투석 환자에서 복강 내 출혈은 이들 환자에서 드물지 않는 합병증의 하나로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치료없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미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아밀로이드증은 신체 조직내 아밀로이드 섬유침착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신장 침범시 말기신부전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주위에 침착하여 혈관여림 및 혈액응고장애를 유발하여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경우 복강내 고형장기의 아밀로이드 침착으로 인한 자발성 출혈의 보고는 있으나, 복벽 혈관의 자발성 출혈과 관련된 심한 복강내 출혈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연자들은 아밀로이드증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서혜부 탈장 수술 후 발생한 심한 복강내 출혈을 동맥색전술 및 신선동결혈장 투여로 치료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47세 여자가 좌측 서혜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2개월 전부터 아밀로이드증에 의한 말기신부전 증으로 복막투석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입원 2주전 좌측 서혜부 불편감으로 내원 서혜부 탈장을 진단받고 수술위해 입원하였다. 내원당시 혈압은 생체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서혜부 동통이외 다른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당시 혈액검사서서 **Hb 10.2g/dL, platelet 176000 μ L, PT 10.3초, aPTT 23.2초**였다. 제 1병일째 탈장 수술을 시행받은 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오다 제 5병일째 복부 통증 및 압통이 발생하였고 혈액검사상 **Hb 4.7g/dL**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CT)상 하복부, 회음부 복강내 14x10cm의 혈종이 관찰되었고, 혈관조영술에서 좌측내음부 동맥 및 좌하부 배벽동맥에서의 출혈이 확인되어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혈색소의 변화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 제 10일째 다시 **Hb 4.5g/dL**까지 감소하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우측 회음부 후복강 및 신주위 혈종이 관찰되어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행하였고 이후 더 이상의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 25병일째부터 다시 복막투석치료를 시작하였고 추적 복부 CT상 혈종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더 이상의 출혈 소견없이 외래 추적 중이다.

Key Words : 아밀로이드, 복막투석, 출혈

Amyloidosis, Peritoneal dialysis, Bleeding